‘단오에 즐기는 전통놀이’ 체험 한마당

전주전통문화연수원, 31일 단오 맞아 한옥마을 찾은 시민 · 관광객 대상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오는 31일 전주동헌 체험 한마당의 일환으로 ‘단오에 즐기는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동헌 체험 한마당은 지난 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옥마을을 찾은 전주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단오를 맞아 전통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민속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장명루(소원팔찌) 만들기와 전통놀이(저포, 화가투)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장명루(長命縷)’는 빨강 · 노랑 · 파랑 · 검정 · 흰색의 오색실을 사용해 짜는 팔찌로, 잡귀와 병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만들었던 단오 풍습 중 하나이다.

‘저포(樗蒲)’는 가죽나무(樗)와 부들(蒲)의 열매로 주사위를 만든 데에서 유래하였는데, 나무로 만든 주사위를 던져 그 사위로 승부를 다투는 민속놀이로 윷놀이와 비슷하다.

전주동헌 체험 한마당 포스터

끝으로 ‘화가투(花歌鬪)’는 ‘꽃과 같은 노래(시조)로 다툰다’는 뜻으로, 시조가 적힌 카드를 이용해 누가 더 많은 시조를 외우고 있는가를 겨루는 놀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말과 시조를 잊지 않기 위해 널리 보급돼 일제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고전형 화가투를 응용한 절기형 화가투를 통해 24절기와 세시풍속을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과 관광객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누리집(www.dongheon.or.kr)을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되며, 체험비는 무료이다.

사전 접수 시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81-5271~4)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이번 5월 행사에 이어 매월 △우리 소리와 함께하는 전주 사또 다과상(6월) △전주 한지에 그리는 동양화(7월) △국가무형유산 김동식 선자장과 함께하는 부채 만들기(8월) △독서의 계절에 만드는 매듭 책갈피(9월) △전주동헌 우리 놀이터(10월) △전주동헌에서 만나는 자개 공예(11월)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주시 임청진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전통 명절 단오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잊고 있던 우리 고유의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우리나라의 5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옷날을 기념해 오는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덕진공원 일원에서 전주시민의 안녕과 한 해의 풍년을 기념하는 ‘2025 전주단오’ 행사도 마련한다.

이 행사에서는 전주단오의 전통 프로그램인 △풍년기원제 △전주단오장사씨름대회 △창포물 머리감기 등을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주의하세요”

전주시보건소,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기온 상승으로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3일 보건소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과 세균성이질 같은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와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하절기에 환자 발생이 증가한다.

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6대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최근에는 5월에도 기온이 급격히 오르며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장관감염증 예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시민들께서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음식물 섭취와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비보이그랑프리 대회 현장서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시, 선수 · 방문객 대상 유치 필요성 설명

전주시가 유럽과 아시아 비보이들이 대거 참여하고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고 있는 ‘제18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의 대회 현장을 찾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활동을 벌였다.

전주시는 지난 24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비보이 대회 현장을 찾아 국내외 참여하는 선수와 방문객을 상대로 하계올림픽의 전주 유치 필요성을 홍보했다.

이와 관련 브레이킹 종목이 ‘2024 파리올림픽’의 정식종목 채택을 시작으로 2026 나고야 아시안게임에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비보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이날 비보이그랑프리 본대회가 열리는 전북대 삼성문화회관과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는 야외마당 등을 오가면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필요성을 선수와 방문객을 상대로 설명했다.

특히 외국 무대에 설 기회가 많은 비보이 선수뿐 아니라 비보이 팬들에게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홍보대사가 돼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플렛을 전달하는 등 홍보활동에 힘을 쏟았다.

시는 이번 홍보활동이 올림픽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행사와 축제, 대회 등을 직접 찾아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비보잉 문화의 중심인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에 최적의 행사이며 문화와 스포츠가 결합하는 특별한 기회를 통해 올림픽 유치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의 열정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고창경찰서 해리파출소, 토취장서 안전 점검

고창경찰서(서장 한도연) 해리파출소(경감 김재경)는 지난 23일, 관내 토취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토취업자 및 덤프트럭 운전자들과 만나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현장 점검은 토사 운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덤프트럭의 난폭운전 금지, 적재물 낙하 방지, 살수차 운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계도했다.

김재경 해리파출소장은 “덤프트럭의 난폭운전은 보행자와 농기계 관련 사고 위험을 높여 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라며, “운전자뿐 아니라 토취업자들도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 운행과 현장 관리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시,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 나서

전주시가 시민들의 마을 사랑방인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자원활동가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도서관학교’를 운영했다.

시는 2017년부터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도서관학교’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교육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황요한 전북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생성형 AI로 혁신하는 작은도서관’을 주제로 △AI 시대의 변화와 도서관의 역할 △프롬프트 리터러시의 개념 △작은도서관 현장에서의 AI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소개했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이번 교육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작은도서관이 주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더 가까운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자원활동가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도서관학교’를 운영했다.

/권희성 기자

고창경찰서, 합동 범죄예방 캠페인 펼쳐

고창경찰서(총경 한도연)는 지난 23일 고창 5일장을 맞아,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찰협력단체인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와 함께 합동 범죄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날로 유동 인구가 급증하는 고창전통시장과 고창공용버스터미널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시민들에게 강력범죄 예방 수칙, 흉기 난동 대응 요령, 긴급 신고 112 활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실질적인 예방 활동에 나선 것이다.

특히 시장 내 밀집 구역, 터미널 대합실 및 정류장, 주변 상가 등을 돌며 범죄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지역 상인 및 주민들과의 소통 순찰을 통해 불안 요소를 사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한도연 서장은 “최근 사회적 불안을 유발하는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이 절실하다”라며 “시장뿐 아니라 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